

# “우리 에이스가 승리를 안겼다” 토론토 SNS 들썩

류현진, 마이애미전 시즌 3승  
야수진, 공·수·주서 실수 빈번  
6이닝 1실점 8K...위기관리 능력 빛나  
“동료들, 노력하다 그런거잖아요”  
특급 실력에 인터뷰 매너 돋보여

토론토 블루제이스 에이스 류현진(33)은 동료의 영성한 플레이에 표정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견고한 투구를 이어나갔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생겼지만, 류현진이 흔들리지 않은 덕분에 토론토는 값진 승리를 따낼 수 있었다.

류현진은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6이닝 4피안타 2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 2-1 승리를 이끌었다.

류현진은 2-1로 앞선 7회말 승리 요건을 갖추고 볼펜에 공을 넘겼고, 볼펜이 마이애미 추격을 막아줘 시즌 3승(1패)을 수확했다.

8월 상승세를 9월에도 몰고 온 모습이다. 지난달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29를 기록하며 7월 부진에서 반등한 류현진은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에 성공하며 시즌 평균자책점을 2.92에서 2.72로 낮췄다.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서 현지 기자들은 류현진에게 ‘수비와 주루에서 실수가 연달아 나온 상황을 극복한 비결’을 물었다.

류현진은 “주자들이 일부러 죽은 것도 아니고, 노력하다 상대에 당한 것”이라며 “선발투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동료들을 감쌌다.

토론토 조나선 비야는 1회초 안타를 치고 무리하게 2루까지 뛰어가다가 아웃을 당했고, 로우데스 구리엘 주니어는 2회초 안타로 출루했지만, 포수 견제구에 잡혔다.

비야는 2회말 송구 실책으로 1사 1, 2루 위기를 만들었다. 비야는 4회초 3루까지 진루하는 데 성공했지만, 포수 견제에 잡혀 득점 기회를 날리기도 했다.

류현진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한 배경을 “항상 선취점을 내주지 않으려고 준비하면서 투구했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이날 수비 도움 없이 상대 타자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이날 개인 올 시즌 최다 타인인 8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8월 상승세를 9월에도 이어간 류현진은 “8월과 비교해 오늘 투구도 비슷하게, 적당히 잘 던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5회말까지 89개의 공을 던지고도 6회말에 마운드에 오른 이유를 묻자 “투구 수가 100개를 넘지 않았고 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코치님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내가 괜찮아서 올라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현지인들 팬심 폭발

“손도 못 댈걸” 글귀에 사진...“잘했어요(Good for Ryu)” 언어유희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팀에 승리를 안긴 선발투수 류현진(33)을 향한 애정이 뚝뚝 흘러넘치고 있다.

토론토는 3일(한국시간)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2-1로 승리한 뒤 구단 공식 트위터에 “우리의 에이스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겼다”고 글을 남겼다.

토론토 에이스 투수인 류현진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6이닝을 4피안타 2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동료들이 수비 실책과 주루 실수 등으로 위기 상황을 자주 만들었는데도 류현진은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내며 능률하게 호투를 이어갔다.

토론토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손도 못 댈걸(Ryu can't touch this)”이라며 류현진의 투구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토론토 인스타그램은 종종 당신(You)을 뜻하는 인칭대명사를 대신해 류현진의 성 류(Ryu)를 사용해 재밌는 문장을 만든다.

토론토 팬들도 댓글에서 “잘했어요(Good for Ryu)”, “훌륭해(TeRyUiffic)” 등 언어유희에 동참하며 류현진을 칭찬했다.

/연합뉴스



구단 공식 트위터에 “우리의 에이스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겼다”고 글을 남겼다.



구단 SNS에 “손도 못 댈걸(Ryu can't touch this)”이라며 류현진 투구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 “아버지 따라 야구인의 길 걷습니다”

KBO, 해외파 트라이 아웃  
김기태 전 KIA 감독 장남  
김건형 씨, 한국 프로야구 도전  
미국 아마야구서 중견수 활동

KBO는 7일 해외파 트라이 아웃을 진행한다. 눈길 끄는 ‘야구인 2세’들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다.

‘해라클라스’ 심정수의 장남인 심종원과 함께 ‘레전드’ 김기태 전 KIA 감독의 장남 김건형(24)이 이번 트라이 아웃을 통해 KBO리그에 도전한다.

인천 동막초에서 야구를 시작한 김건형은 내성중 3학년 여름에 어머니, 동생과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아마추어 야구 선수로 뛰어난 김건형은 아이다호주에 있는 보이지 주립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마지막 시즌 일정이 무산되면서 그는 지난 4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제주도에서 조용히 개인 훈련을 해왔던 그는 최근 아버지의 모교인 광주일고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김건형은 “많은 관심을 받을 정도의 선수는 아

니다”라면서도 “타격에서는 컨택에 자신이 있다. 힘이 그렇게 센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라인 드라이브로 넘기기도 한다”고 웃었다.

주로 중견수로 뛴 그는 KBO리그 최초의 ‘좌타자 홈런왕’ 아버지처럼 왼쪽 타석에 서지만 공은 오른손으로 던지는 우투좌타. 김건형에게 야구는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당연히 야구를 했고, 이번 도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리그에서 야구를 한만큼 적응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장점이기도 하다.

김건형은 “미국에서 야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 대학에서도 야구 하나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배우면서 다른 ‘총알’도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부전공으로 마케팅을 공부했다. 야구 선수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달리는 그는 다음 지점으로 야구를 생각하고 있다.

김건형은 “당연히 야구 선수가 꿈이다. 혹시 내가 야구 선수로서 실력이 안 되면 좌절하지 않고 제2의 길도 야구 쪽으로 가고 싶다”며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살려서 야구인으로 쪽 남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기태의 아들’로 주목받았지만 자신의 야구

길을 가는 게 김건형의 바람이다.

그는 “SK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난다. 잘 몰랐다가 레전드 30주년 할 때 어느 정도의 선수였는지 느꼈다”며 “나중에 야구를 하면서 아버지 선수 시절 영상을 봤을 때는 독특한 선수였던 것 같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또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안 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나는 내 야구를 하는 것이니까 내 길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선수도 있구나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아보면 아버지에게 서운한 부분도 있다. 아들에게 특별히 야구 조언을 해주지 않은 레전드 아버지였다.

김건형은 “사실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던 것 같다. 지금은 아버지 마음이 이해된다”며 “오히려 부담 없이 내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금도 김 전 감독은 무심한 듯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 “열심히 해라”가 아버지의 유일한 조언이다. 김건형은 “트라이 아웃을 준비하면서 부담 안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오니 부담이 된다”며 “누구를 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쫓아가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집중하면서 후회 없이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건형